



한수원, '새정부 동반성장정책 혁신 아이디어' 선정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18일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새정부 동반성장정책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최우수상 2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은 'AI 기반 원전수출 통합 지원 플랫폼', '한수원 DB 연동형 AI 문서 자동생성 플랫폼' 등 두 과제가 차지했다. /한수원



금호석유화학, 임직원과 파초일엽 양육·식재

금호석유화학은 최근 멸종위기종 파초일엽의 성공적인 양육과 식재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자연자본과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룹 6개 회사 본사 및 서울사무소 전 임직원들은 올해 2월부터 파초일엽 양육 프로젝트에 참여해 특별로 두 그루씩 맡아 꾸준히 돌보았으며 이렇게 자란 파초일엽 210그루를 최근 금호제주리조트 화단에 식재했다. /금호석유화학



동아쏘시오그룹, 동아에스티 견학 프로그램 진행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18일 상주고등학교 과학중점반 2학년 학생 42명을 동아에스티 송도캠퍼스 및 연구실로 초청해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과학중점고등학교로 지정된 상주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제약·바이오 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동아쏘시오그룹



코웨이 '비렉스 트리플체어', 우수디자인 선정

코웨이의 '비렉스(BEREX) 트리플체어(MC-R01)'가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우수디자인(GD) 상품에 선정됐다. 19일 코웨이에 따르면 비렉스 트리플체어는 워크(Work), 릴랙스(Relax), 마사지(Massage)의 3가지 기능을 하나에 담은 다기능 체어다. 어느 공간에나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감각적인 디자인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기능으로 심미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제품이다. /코웨이



GS리테일, ESG 평가서 2년 연속 'A+ 등급'

GS리테일이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5년 정기 ESG 등급 평가'에서 통합 A+ 등급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ESG 평가 최고 등급인 A+를 달성했다. 올해 평가 대상 805개 기업 중 통합 A+ 등급을 받은 기업은 149곳으로, 전체의 2.4%에 불과하다. /GS리테일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사업보국' 정신 기린다

호암미술관 선영서 38주기 추도식 삼성 총수 일가, CJ그룹 등 참석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38주기 추도식이 19일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렸다. 추도식에는 삼성을 비롯해 신세계, CJ, 한솔 등 범삼성 계열 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삼성에서는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이 이날 오전 용인 선영을 찾아 고인을 기렸다. 호암의 손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과 일정이 겹쳐 추도식에 불참했다. 이 회장은 귀국 후



삼성그룹 창업주 호암 이병철 선대 회장의 38주기 추도식이 열린 19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참석해 있다. /뉴시스

태광그룹, 수험생에 무료전시 제공

세화미술관 '노노탁 스튜디오' 전시

태광그룹 세화예술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세화미술관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을 대상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무료 관람 혜택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수능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현장에서 확인 후 무료입장할 수 있다. 수험생 관람객에게는 노노탁 스티커 등 전시 기념 굿즈도 제공된다.

현재 세화미술관에서는 LED 빛과 사운드를 결합한 실험적 설치 작품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크리에이티브 듀오 노노탁 스튜디오의 국내 첫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노노탁은 비주얼 아티스트 노에미 쉬퍼와 빛·사운드 아티스트 타카미 나카모토가 2011년 결성한 팀이다. 시각예술과



세화미술관 노노탁(NONOTAK) 전시 작품.

공연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노노탁이 지난 10여년간 선보인 키네틱 아트, 오디오 비주얼 설치 등 대표 작품을 집약해 선보인다. LED, 프로젝션, 사운드가 결합된 몰입형 공간 설계로 관람객은 빛·소리·움직임이 교차하는 다층적 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주)한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등 운영

(주)한화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2년 연속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수행한 기업·공공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공식 인정하는 제도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사회공헌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주)한화는 한화그룹의 '함께 멀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보호시설을 떠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육시설의 노후 공간을 개보수하는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약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증로고.

/ (주)한화

을 맺은 이후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 서울후생원에 '한화와 함께하는 희망보금자리 1호'를 개관했으며 현재 2호점 개관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임직원과 함께하는 농촌 일손 돕기', '여름 제철 음식 나눔 봉사활동' 등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을 시기별로 운영하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 지원은 물론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따로 선영을 찾아 고인을 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을 제외한 삼성 총수 일가는 약한 시간 동안 선영에 머문 뒤 자리를 떠났다. 삼성 사장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올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호암의 장손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이날 오전 가장 먼저 아들 이선호 CJ주식회사 미래기획실장 부부, 딸 이경후 CJ ENM 브랜드전략실장 부부 등과 함께 선영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오후에는 호암의 외손자인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신세계그룹 사장단 등이 선영을 찾아 참배했다.

범삼성 계열 그룹 일가는 과거 호암 추도식을 공동으로 열었지만, 형제인 CJ 이맹희 전 회장과 삼성 이건

희 선대회장이 상속 분쟁을 벌인 2012년부터는 같은 날 시간을 달리해 별도로 행사를 해 왔다.

범삼성 일가는 이 창업회장의 '사업보국' 정신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기일에 맞춰 추도식을 열고 있다. 사업보국은 호암의 첫 번째 경영철학으로서, 기업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더 나아가 인류에 공헌하고 봉사한다는 의미다.

사업보국은 호암의 첫 번째 경영철학으로서, 기업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더 나아가 인류에 공헌하고 봉사한다는 의미다. 이 창업회장은 자서전 '호암자전'에서 "나의 국가적 봉사와 책임은 사업의 길에 투신하는 것"이라고 회고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삼양그룹, '세계일류상품' 신규 선정

MPC 유도체, 써지가드 소재 2종

삼양그룹의 스페셜티(고기능성) 소재 2종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세계일류상품으로 신규 선정되며 기술력과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19일 삼양그룹에 따르면 삼양바이오팜과 삼양KCI는 지난 18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년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에서 수상기업으로서 인증서를 받았다. 세계일류상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글로벌 인증 제도로, 연간 수출 실적과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현재·차세대 부문으로 나뉘어 선정된다.

삼양KCI의 생체친화적 소재 'MPC(Methacryloyloxyethyl Phosphoryl Choline) 유도체'는 현재 세계일류상품에, 삼양바이오팜의 흡수성

지혈제 '써지가드(SurgiGuard)'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MPC 유도체는 인체 세포막의 주요 성분인 인지질을 모방해 피부 친화성과 생체적합성이 뛰어난 고기능성 소재로, 피부 장벽 강화·수분 유지력이 우수해 고보습·저자극 스킨케어 제품과 자외선 차단제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써지가드는 삼양바이오팜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생체흡수성 지혈제로, 체내에서 안전하게 흡수되는 소재를 기반으로 수술 중 출혈 조절에 활용된다.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쓰인다. 지난해 12월에는 유럽 의료기기(CE MDR) 인증을 획득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성과 성능을 인정받았다. /원관희 기자 wkh@

LG U+, ESG평가서 5년 연속 A등급

환경분야, 지난해보다 오른 A+

LG유플러스는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2025년 ESG 평가에서 5년 연속 종합 A(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 평가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 영역의 리스크와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지표다. LG유플러스는 올해도 A 등급을 유지했고, 환경 분야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른 A+ 평가를 받았다.

환경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경영 활동이 높게 평가됐다. LG유플러스는 TNFD(자연 관련 재

무정보공개 협의체) 가이드라인에 맞춰 생물다양성 리스크를 점검하고 관련 보전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고효율 네트워크 장비 도입 등으로 전력 사용을 줄이고 있으며, 대전 R&D센터에 설치된 1000kW급 태양광 설비를 운영해 온실가스 저감 활동도 지속 중이다. 사회 분야에서는 소방청과 함께 '119 메모리얼 런'을 운영하는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지배구조에서는 중장기 재무 목표, 달성 방안, 주주 환원 계획 등을 포함한 '밸류업 플랜'을 공시하며 투명성을 높였다.

/김서현 기자 seoh@

인사

◆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공시점검과장 문종숙

◆ **효성그룹** ◇효성티앤씨(주) △부사장 동나이법인장 배인환 △전무 취저우 스팅팩스법인 총경리 임규호

부음

▲시정자씨 별세, 김진국(전 창녕군 계성면장)씨 모친상 = 18일,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201 창녕군공설장례식장 제3분향실, 발인 20일 오전 9시30분, 장지 창녕추모공원. 055-533-8510